

2002년 10월 31일

---

##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초청 강연

### ■ 새로운 시대, '동북아시아'의 구상과 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저와 민주당이 앞으로 펼쳐 갈 동북아시아의 구상에 관심을 가지고 초청해 주신 중국, 일본, 대만, 오키나와의 대표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자 뜨거운 나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 벽두에 선 세계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는 가고,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과 교통망으로 이어진 세계는 갈수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아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춘 경제대국 일본의 존재, 최근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만주 -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국의 빠른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 지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와 경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가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 부상의 진원지 ; 한반도

존경하는 동아시아의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

동북아 시대 부상의 진원지는 바로 한반도입니다. 마지막 남은 냉전 지역이었던 한반도는 여러 굴절을 겪으면서도 급격하게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평화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접근에 합의한 각 국의 정상들을 볼 때, 한반도의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다시 한번 동북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점차 위기가 관리되고 있으며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

니다. 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님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일괄타결방식을 대통령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1단계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를 함께 타결한 후 2단계로 북한의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와 국제기구와 한·미·일이 대북지원을 맞교환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협력은 더욱 진척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고 경의선, 동해선 연결 공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추진, 신의주 경제특구 등은 북한의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일정상회담과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도 새로운 동북아 시대로 이끄는 역동성의 주요한 지점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점인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고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권은 그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권 발전에 필수적인 물류망이 한반도의 분단과 이에 따른 철도망의 단절로 적지 않은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남북간 철도 및 도로 복원은 단순히 한반도 철도망의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모색돼야 합니다. 하기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전후세대에 의한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구상의 구체적 실천이 시작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한반도 운명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차원에 집중되었던 김대중 정부의 화해와 협력 정책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시적인 지역협력으로 나아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추(Hub)국가로 부상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 후보로서 저와 민주당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비전입니다.

한국의 국가비전: 동북아시아 중추(Hub)국가

존경하는 동아시아의 전문가 여러분

저는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추를 지향하는 Hub Korea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개통되면 이 노선들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되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R)에 연결되어 한반도 연결망과 아시아 연결망, 나아가 세계적 연결망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노선들은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국제공항에 연결되어 철도와 항만, 항공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인적·물적자원의 교류시스템과 유통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국제자유도시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부산신항과 그 배후지를 “물류 자유지역”(Free Logistics Zone)으로 지정할 것이며, 국제허브공항인 인천공항 배후지, 그리고 제주도와 광양지역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한국의 동남부, 서부, 서남부, 남부의 거점지역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수도를 중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향후 10년 이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외국어와 통상 및 IT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한반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지역 물류 및 첨단 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한국을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개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외국기업을 위한 특별지역을 조성하

고 외국인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외국인 주거여건과 생활환경, 자녀 교육여건, 언어사용의 불편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통해 투명한 기업과 공정한 시장을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화합을 이루어 내고 기업환경개선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의 구상

존경하는 각 국의 전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Hub Korea와 신한반도 구상은 한국만의 혹은 남북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러한 구상은 동북아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는 지역내 각국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저의 계획은 '남북 공동의 집짓기'와 '동북아시아 동네 만들기'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동북아의 주변국 및 국제기구의 참가와 연계하여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내륙개발과 러시아의 자원개발, 북한의 개방과 개발 등 엄청난 수요가 동북아에 잠재해 있습니다. 과거 EU가 철강, 석탄을 매개로 경제통합을 추진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는 철도 연결, 에너지 개발, 이를 위한 공동 자원조달기구 형성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질서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 동북아 개발은행, 철도연결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과 동북아 철도공사의 설립, 동북아 에너지 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구, 동북아 정보통신사업 표준화 등 동북아 시대의구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동북아 각 국에 제안하고 상호간의 협력하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다양한 다자 협력기구의 본부가 한국에 유치된다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전문가 여러분!

동북아 시대에 대한 저의 구상은 이러한 다양한 협력의 과정을 통해 경험과 교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동남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경우 전체적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등 역내 자본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상품시장의 잠재력에 있어서도 동아시아는 규모와 대외관계에 있어 독자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이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동북아내에 일관된 상품시장과 독자적인 자본시장을 형

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미국식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EU통합을 이루고 단일통화를 창출한 것처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아시아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이 ASEAN을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지만,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은 아직 가시적인 협력체제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요인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고 또한 새로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최근 지역주의 확산의 영향을 받아 한중일 3국이 각각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아세안간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FTA추진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간 FTA는 아직 공식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해 빠져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동북아 내에서 입지와 비교우위를 활용해 이미 자유교역이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민간에 의한 자유경제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거래확대에 지장을 주는 장애들을 점차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3국간 협력기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교역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중간자적 혹은 중재자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개발과 위기의 경험을 거치면서 중국이나 일본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각 나라의 산업이 모두 고도화되고 동종 산업내 교역이 심화되는 다차원적인 수평적 분업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분업체계내에서 부품소재 등 중간재 산업과 물류, 비즈니스 기지를 통해 중간자적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경제적 측면 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나 영토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포럼(ARF)과 같은 안보대화 기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평화 협의체'의 창설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별도로 평화협의체를 창설하여 동북아국가들간의 동맹

과 세력균형 외교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신뢰구축과 평화증진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정자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동북아 평화협의체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상설 기구를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북아시아의 시대구상과 제언속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드리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북아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각 국의 전문가 여러분과 저의 생산적인 소통과 저의 열린 정책 형성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합니다.

동북아시아 시대구상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 노무현은 열린 귀를 가지고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신 중국, 일본, 대만, 오키나와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